

새해에는 창의력 발휘해 광고시장 발전 기해야



한국광고주협회는 1월 14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광고주협회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광고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광고시장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2% 초반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고시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광고인들이 보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방송광고총량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선 등의 호재로 광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주협회는 매체이용실태조사, 반론보도닷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광고시장이 정착되도록 힘쓰는 한편 방송·신문 등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과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통해 기업과 광고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해나간다고 언급했다.

이 날 교례회에는 SBS의 경영·보도 간부진 20여명을 초청해 광고주협회와 간담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용모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등의 성장으로 방송환경이 무한경쟁에 돌입했지만, 올해도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이 창의적인 킬러 콘텐츠를 제작해 SBS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SBS가 창사 시절부터 견지해 온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을 전 분야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영범 보도본부장과 이철호 편성본부장이 2015년도 SBS 보도·편성방향을 발표해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회원들은 경기가 어렵지만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새해에는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해줄 것을 SBS 측에 요청했다. **K A A**

이명진 soziro01@nate.com